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4일(목) 총 3매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박서현 ☎440-3241 • 담당자 임미란 ☎440-32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유럽 금융메카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교류 물꼬

- 대표단 방인, 양 도시 간 상호 전략산업 교류 우호협력 MOU 체결 -
 - 뉴홍콩시티·지역은행 설립 등 아시아 신금융 허브 추진 네트워크 구축 -

해외 금융기관 유치, 지역은행 설립 등을 통해 아시아의 신금융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민선8기 인천시가 유럽 금융의 메카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글로벌파트너십을 맺고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인천광역시는 8월 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피터 펠트만 (Peter Feldmann)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인천시·프랑크푸르트 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양 도시 시장과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진용준 메세프랑크푸르트 한국대표, 울리히 카스파(Ulrich Caspar) IHK 프랑크푸르트 회장, 에릭 멩게스(Eric Menges)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경제개발공사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유럽의 금융 허브도시인 프랑크푸르트와 우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도시 간 전략산업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뉴홍콩시티 건설과 지역은행 설립 등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획하게 됐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6기 시장이었던 2014년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유럽 거점도시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공을 들인 도시이기도 하다. 이번에 인천을 방문한 피터 펠트만 시장은 2014년 유정복 시장이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을 당시 시장으로 양 시장은 8년 만에 재회한 것이어서 이번 양 도시 간 전략산업 우호협력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도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금융 및 과학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 민간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 방문단은 양해각서 체결식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방문해 글로벌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구 개항장도 둘러봤다. 또, 다음 날에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월미공원 등을 방문해 인천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 헤센 주의 최대 도시이면서 독일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항공·교통 요충지인 프랑크푸르트는 다수의 국제기구와 기업,

독일연방은행·유럽중앙은행·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이 위치한 국제 비즈니스 도시이자 박람회 도시다.

인천시와 프랑크푸르트는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 공항이 있는 도시 이면서 국제기구 등이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앞으로 금융 허브 추진 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주요 공약인 뉴홍콩시티 건설과 지역은행 설립 추진 에 있어 선진화된 독일의 여신 및 관계형 금융시스템을 참고하고 싶 다” 며, “앞으로 양 도시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교류는 물론 미스 (MICE) 산업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 대한다” 고 말했다.

피터 펠트만 프랑크푸르트 시장은 “인천시와 경제, 금융, 과학 분야 에서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내년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 기념해 인천 시 대표단을 프랑크푸르트로 초청하고 싶다” 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30분)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